

모습 드러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서버 D램가격 전월比 5% ↑... 삼성·SK 역대급 실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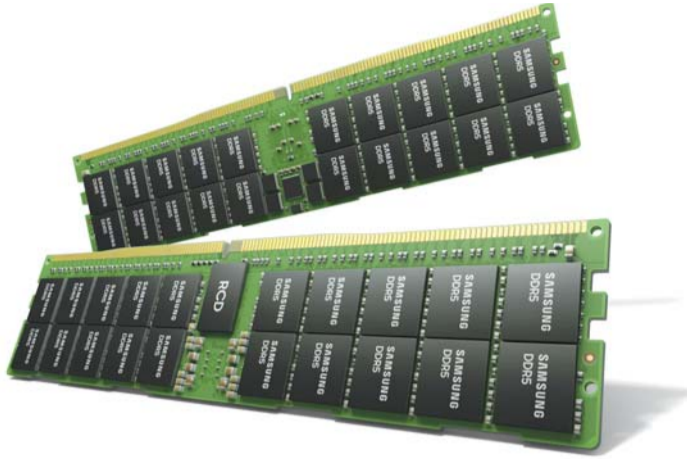
반도체 공급난 지속, 가격 천정부지
三電 1분기 영업익 9조 이상 전망
일각선 장기적 경쟁가속화 우려도

반도체 업계가 초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다. 공급난이 지속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투자 지원도 늘어나면서다. 그러나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지원도 미비해 장기적으로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버용 D램 반도체 가격이 지난달 5% 가량 상승했다. 3개월 연속 상승세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서버용 D램 가격이 1분기보다 20%나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D램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세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슈퍼 사이클’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얘기다. 글로벌 서버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설비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인텔과 AMD, Arm 등 CPU 업계에서 서버용 제품을 새로 내놓으면서 수요에 불을 지폈다. 서버 시장 큰손인 인텔이 2분기 신규 서버용 CPU 출시를 예고하면서 반도체 확보 전쟁은 더욱 치열해



HKMG 공정을 적용한 삼성전자 512GB DDR5 모듈.

/삼성전자

질 전망이다.

낸드와 PC 및 모바일 D램 가격은 아직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업계가 수요에 맞춰 서버용 생산 비중을 늘리는 상황에서, IT 업계도 신제품 출시 경쟁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 이미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이 화웨이와 LG전자가 떠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의 전문가들도 1분기 반도체 업계가 기대를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확인하는 모습이다. 영업이익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조정해 삼성전자는

9조원을 넘을 것으로, SK하이닉스도 1조원 중반대까지 예상하고 있다. 조만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 수준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메모리뿐 아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극심한 공급 부족으로 모처럼 ‘값’으로 올라섰다. 전장 반도체에서 시작된 확보 전쟁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 글로벌 파운드리(GF) 톱 콜필드 CEO는 반도체 공급난이 앞으로도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반도체 업계가 슈퍼 사이클을 타고 대대적인 투자에 돌입한 것. TSMC가 앞으로 3년동안

1000억달러(한화 약112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인텔(200억달러)과 GF(14억달러) 등 파운드리 업체가 거액을 내놓기로 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투자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지만, 4세대 10나노(1a) D램과 178단 낸드 등 차세대 제품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공급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 슈퍼사이클 직후 찾아온 메모리 업계 불황을 연상케한다. 2015년 이후 슈퍼 사이클을 예상했던 반도체 업체가 대규모 투자로 공급을 대폭 늘리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결국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던 것.

각국 정부까지 나서면서 추진력은 더욱 커진 모습이다. 미국과 유럽 등이 반도체 독립을 목표로 자국내 반도체 생산을 독려하는 상황,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응한 반도체 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예상에 불안감이 높아졌다. 국내 업체의 주요 거래처가 미국과 중국에 몰려있는데, 한쪽에서 서게되면 사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중무역 분쟁 당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미

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면서 주요 공급처를 잃게 된 것.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이같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또다시 국제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슈퍼사이클 이후에는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전방위적 지원으로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장용 반도체 부문에만 일부 지원을 약속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당장 차세대 메모리 부문에서 미국 마이크론에 뒤처져있다. 마이크론은 올 초부터 1a D램과 178단 낸드 양산에 돌입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개발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차세대 메모리가 기술적으로는 훨씬 앞서 있어 경쟁사에 뒤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쟁사가 추격하면 보란듯이 새 기술을 제시했던 과거 초격차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SK-LG, 美 ITC 배터리소송 신경전 지속

“발목잡기식 소송” vs “가해자가 으름장”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솔루션

바이든 거부권 기한 앞두고 갈등 격화
SK “분리막 특허소송전 사실상 승리”
LG “억지주장 지속... 아전인수 행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거부권 행사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론전을 지속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한국에서의 특허 무효·비침해 판결에 이어 미국 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이 나왔다. 10여 년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며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ITC가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 건도 실제적인 본질을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소송을 시작한 것은 2011년이다. 당시 SK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작했다”라며 “LG는 2019년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분리막 특허 등 특허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2011년 한국 특허 소송의 정확한 대자 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가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제1공장.

시작한 ITC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다.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 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LG는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며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SK의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K는 판결기관인 미국 ITC에 대해서조차 투박하고, 극단적인 SK식 ‘조변석개’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SK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LG는 “당사가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소송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임에도 조지아주 공장을 불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자동차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직원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ESG경영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또 다른 변수를 맞이할 전망이다. 지난 2월 ITC가 최종 판결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이 오는 11일(현지 시간)까지이기 때문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日 완성차, 하이브리드로 국내시장 재공략

재작년 불매운동 이후 판매부진
올해 판매증가율 플러스 전환



렉서스 ES300h

일본 수입차 브랜드가 우수한 경제성과 뛰어난 승차감을 갖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반등에 나서고 있다.

일본 브랜드의 상승세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연결시켜주는 중간단계인 하이브리드 모델 선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일본차 판매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섰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3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34.4% 증가한 2만7297대로 집계됐다. 전달보다는 22.5% 늘었다. 1분기 누적으로는 7만1908대로 전년 동기대비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한규 한국수입차협회 부회장은 “지난달은 2월보다 영업일수가 증가하고 각 브랜드가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나서면서 신규 등록 대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별로 일본 모델이 전년 동월 대비 23.5% 증가한 1737대가 판매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의 인기와 신모델 출시에 재작년 불매운동의 영향이 누그러지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판매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차 브랜드의 전체 판매는 렉서스가 이끌었다. 지난 3월 렉서스의 ES300

h는 트림별 최대 판매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2월 9위에서 다섯 계단 오른 순위다. 렉서스는 3월 860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109.2%가 상승했고 같은 기간 도요타는 544대로 31.7%, 혼다는 333대로 43.5% 증가했다.

렉서스는 전기차 대체제인 하이브리드가 각광받으면서 스테디셀러 ES300h가 판매고를 이끌었다. 혼다는 CR-V 하이브리드,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출시로 세단과 SUV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지난달 수입차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7597대로 2월에 이어 3월에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BMW가 612대로 2위, 아우디(2737대), 폴크스바겐(1628대), 지프(1557대), 볼보(1251대) 등의 순이었다. 이어 미니(1천224대), 포르쉐(980대), 렉서스(860대), 쉐보레(733대), 포드(557대), 토요타(544대), 링컨(349대), 혼다(333대), 랜드로버(292대) 등이 뒤를 이었다.

연료별로는 전기차가 512대로 15.7% 감소했고, 하이브리드는 5866대로 3.8배 증가했다. 가솔린은 1만4840대로 21.8% 증가한 반면 디젤은 4043대로 26.4% 감소했다. /양성운 기자 ysw@